

주체사상 일문일답 50가지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주체105(2016)년

차 례

문 1 : 주체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4
문 2 : 주체사상은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상인가	7
문 3 : 주체사상의 사상정신적원천은 무엇인가	9
문 4 :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란 무엇인가	11
문 5 :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12
문 6 :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무엇인가	15
문 7 : 사람을 왜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가	18
문 8 :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20
문 9 :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22
문 10: 의식성이란 무엇인가	24
문 11: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어떻게 련관되어있는가	26
문 12: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어떻게 형성발전되는가	28
문 13: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무엇인가	30
문 14: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무엇인가.....	32
문 15: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무엇인가.....	34
문 16: 주체의 사회력사관이란 무엇인가	36
문 17: 사회란 무엇인가	38
문 18: 사회생활은 어떤 분야로 나누어지는가.....	40
문 19: 사회의 성격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43
문 20: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무엇인가.....	45
문 21: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7
문 22: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란 무엇인가.....	49

문 23: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고 하는가.....	51
문 24: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어떻게 발전되어나가는가.....	54
문 25: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고 하는가.....	56
문 26: 사회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어떻게 발전되어나가는가.....	58
문 27: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고 하는가.....	60
문 28: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62
문 29: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란 무엇인가	64
문 30: 자주적립장이란 무엇인가	66
문 31: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8
문 32: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0
문 33: 경제에서 자립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2
문 34: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4
문 35: 창조적립장이란 무엇인가	76
문 36: 인민대중에게 의거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8
문 37: 실정에 맞게 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0
문 38: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2
문 39: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4
문 40: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86
문 41: 주체의 혁명관이란 무엇인가	88
문 42: 혁명의 근본원리는 무엇인가	89
문 43: 혁명이란 무엇인가.....	91
문 44: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93
문 45: 혁명적수령관이란 무엇인가.....	95

문 46: 혁명적조직관이란 무엇인가.....	98
문 47: 혁명적군중관이란 무엇인가.....	100
문 48: 혁명적도덕관이란 무엇인가.....	102
문 49: 주체의 인생관이란 무엇인가.....	105
문 50: 사람의 가장 귀중한 생명은 무엇인가.....	107

문 1 : 주체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답 선행한 모든 사상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사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힌 철학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인류철학사상사에는 수많은 철학조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신》과 같은 신비로운 존재나 정신을 위주로 한 관념론적 세계관이 아니면 물질위주의 유물론적세계관이였다. 물론 종래 철학사상들가운데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표방한 각이한 류형의 《인간철학》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을 론하는 인생철학에 지나지 않았다.

주체사상은 우선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사람이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철학적이고찰의 중심에 놓고 제기한 세계관적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해답을 준 원리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적 원리로 되며 동시에 인간의 운명개척의 원리로도 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며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혀준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에

기초하여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준다는데 종래의 모든 철학사상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주체사상의 근본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인것으로 하여 철저한 혁명철학, 정치철학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 창시되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사상리론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풍부화된 사상으로서 혁명투쟁의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존재라는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대중의 투쟁경험을 일반화하여 정립되고 심화발전된 사상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절대적인 진리로, 인민대중 누구나가 쉽게 리해하고 투쟁의 무기로 삼게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을 철저한 혁명철학이라고 하는 리유가 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철학일뿐아니라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개척되며 사회의 발전은 정치에 의하여 향도된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철학사상만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과 사회력사관의 원리들, 혁명관의 원리들은 가장 과학적인 세계관적원리들일뿐아니라 사회발전을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들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을 가리켜 정치철학이라고 한다.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일뿐아니라 철저한 혁명철학, 정치철학이 라는데 철학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의 특징이 있다.

문 2 : 주체사상은 어떤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상인가

답 주체사상은 선행한 모든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수천년에 걸치는 적대계급사회의 전기간 근로인민대중은 극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온갖 무권리와 착취를 강요당하여왔다.

그러나 20세기 초엽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하고 유럽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급격히 양양되였다. 그리고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착취와 억압밑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아시아나라인민들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었다.

당시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있던 이 모든 격동적인 사변들은 과거 역사의 대상으로만 되어있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시대가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이다.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는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새 시대 혁명실천의 이 요구를 실현하는것은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는 부패무능한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에 의하여 사대주의가 더욱 조장되고 파벌싸움이 우심해진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 년대에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가꿈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을 받으려 다녔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떠나서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심하게 작용하였으니 혁명의 앞길이 열릴수 없었다.

주체시대를 개척한 조선혁명은 강대한 일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었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혁명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10 대의 어린신 나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래한 새 시대의 요구를 누구보다 먼저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창시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 되게 되였다.

문 3 : 주체사상의 사상정신적원천은 무엇인가

답 주체사상의 사상정신적원천은 《지원》의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사상정신적원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었던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이다.

《지원》이란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지원》의 사상은 나라를 찾기 위한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의 역사적교훈으로부터 나온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인민대중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라의 독립을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주정신을 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사상이 담고있는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과 숭고한 민중중시사상, 자력독립의 사상을 가장 귀중한 사상정신적자양분으로 받아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어 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나가시였다.

그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두가지 출발점을 발견하게 되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72(1983)년 6 월 말 7 월 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루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을 만나주

신 자리에서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실패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사상을 가질수 있게 되는데는 아버지의 혁명적영향도 많이 작용하였습니다.》라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지원》의 사상은 이렇게 주체사상이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혁명사상으로,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매개 나라 혁명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에게 있다는 원리에 기초한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세상에 나올수 있게 한 원천으로 되었다.

문 4 :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답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이란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을 말한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 세계는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발전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다음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은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인것만큼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력사상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을 밝힌것은 없었다. 세계가 관념이나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관념론은 더 말할것도 없고 지난 시기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본 유물론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종래의 모든 철학적세계관과는 달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이라는데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특징이 있다.

문 5 :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인가

① 주체사상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의 근본문제란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풀어야 할 수 많은 문제들가운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적인 문제이다.

철학에서 어떤 문제를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철학의 근본원리와 그에 기초한 철학의 전반체계와 내용이 달라진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두 면을 가지고있다. 그 하나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노는 사람의 역할문제이다.

이 근본문제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세계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문제이며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 문제로서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보다도 철학의 본성과 근본사명에 전적으로 맞는 문제이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것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한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순수 인간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인것만큼 이 문제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직접 밝히는 세계관을 줄수 있게 설정된 문제이다.

세계와 사람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풀면 그로부터 세계가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관점과 입장을 밝힐수 있고 나아가서 사람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방도를 밝힐수 있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다음으로 인류의 세계관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문제이다.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부단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신비적인 환상에서 한걸음 한걸음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것은 자기들을 둘러싼 세계를 옳바로 인식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리해를 떠나서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수도 없었고 또 개척할수도 없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철학적세계관발전의 초기부터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하여 그 시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물질이 선차냐 의식이 선차냐 하는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게 되었다. 세계가 그 시원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 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밝힌 맑스주의유물변증법적세계관에 의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세계관발전의 종착점이 아니였다.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된 다음에는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해나가는가 하는것을 옳바로 해명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 문제는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옳바로 풀어나가야만 비로소 해결될수 있다.

바로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혁신하였다.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다음으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문제이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그 이전 시기와는 비할바없이 폭넓고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세계관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마땅히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해결함으로써 철학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문 6 :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무엇인가

답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전반체계와 내용이 전개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원리를 주체사상의 근본원리 혹은 기초원리라고 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문제에 대하여 두 측면에서 해답을 주고 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우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를 밝힌것이다.

사람은 세계에 얽매어 사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의사에 맞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존재이다.

세계에는 다종다양한 물질적존재들이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란 하나도 없다. 밀림속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또 바다의 《맹주》라고 하는 상어도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다. 사자가 제아무리 다른 동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는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주위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다.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나가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높아진다. 사람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투쟁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해나간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곧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주위세계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는 없다.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오직 사람자신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또한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을 밝힌것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변혁해나가는데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의 개조변혁에 물질기술적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에게 의하여 좌우된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컴퓨터가 생산공정을 자동조종하고 또 로봇트가 자동차를 척척 조립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준 지령,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만 가능한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최첨단기술수단들도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수 없으며 세계를 개조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변혁하는 역사적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키우면서 주위세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끊임없이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사람이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를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개척되며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세계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있을수 없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계를 개조변혁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이 살고있는 세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이다.

문 7 : 사람을 왜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가

① 사람을 사회적존재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존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이 사회적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뜻으로서 자연적존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른 자연적, 생물학적존재들과는 달리 사회를 이루고산다. 사람의 모든 생활과 활동은 일정한 사회적관계에 기초하여 결합된 사회적집단속에서만 진행되게 된다.

물론 동물들가운데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무리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둥지를 만들고 먹이를 얻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것이 있다. 그러나 동물들의 무리생활과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생존방식사이에는 넘어설수 없는 한계, 질적차이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원숭이나 침팬지는 태어난 이후에 자기들의 무리와 떨어져 자라도 자기 종의 특유한 음성이나 걸음씨 등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동물개체들의 생존방식이나 특성이 무리관계를 통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여도 만약 사회적관계와 떨어져 자란다면 비록 육체적성장은 하여도 언어나 사고활동은 물론 인간에게 특유한 서서걸기조차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결국 사람은 태어나는것만으로는 아직 고유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오직 사회속에서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 때에만 비로소 사람으로 살

며 발전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을 사회적존재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

사람은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에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사회적재부나 사회적관계와 같이 자연적인 사물현상이 아닌것이 있다. 그런데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존재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만일 사람에게 의하여 창조된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도 사회적존재라고 하면 결국 사람과 그것들과의 본질적차이가 모호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사회적존재는 오직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재부를 창조하며 향유해나가는 사람만으로 보아야 한다.

문 8 :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답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시켜나간다.

자주성은 무엇보다도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는 성질이다.

동물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그에 전적으로 종속되어있다. 동물은 자연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자체를 적응시키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열대지방에서 사는 원숭이나 코끼리를 백곰이 사는 북극지방에 가져다 놓으면 단 한주일도 살지 못할것이다. 그것은 원숭이나 코끼리가 북극의 추위를 견디어낼수 없고 백곰처럼 물고기를 잡는 채간도 없기때문이다. 이것은 주위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는것이 동물들의 피치못할 생존방식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람은 주위환경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으며 외부세계에 종속되는것이 아니라 온갖 구속과 예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근본속성으로서의 자주성이 담고있는 내용의 한 측면이 있다.

자주성은 다음으로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켜나가는 성질이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동물계

에서 떨어져나오면서부터 세계를 자기의 생존과 활동의 무대로 삼게 되었으며 자기의 활동능력과 힘이 증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지배를 더욱 확대해나가게 되었다.

사람의 활동과정이란 세계의 보다 많은 사물현상들과 영역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복무시켜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의 증대에 따라 세계를 지배해나가는 과정은 더욱 확대되고 촉진된다.

이처럼 사람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허용하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해나감으로써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 된다.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은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 또 그에 맞게 진행되게 된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때문에 자주적요구는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로 표현된다.

사람이 자주적요구를 가지고있다는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것으로 하여 온갖 구속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시켜나가는 자주적활동을 할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해나갈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주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고 하는것이다.

자주성은 사람이 사람으로 되게 하는 근본속성이며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생명으로 된다.

문 9 :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④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속성의 하나이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변시켜나간다.

창조성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성질이다.

물론 동물들가운데도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이 돌이나 막대기를 리용하여 먹을것을 얻어내고 또 해리서와 같이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방》을 쌓는것도 있다. 동물들의 이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본능에 기초한 맹목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을 리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여 리용한다.

창조성은 다음으로 새것을 만들어내는 성질이다.

인간활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미 주어져있는것의 부분적개작이나 변형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기성의 형태로 주어져있지 않는 전혀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새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자연자체로서는 만들어질수 없는 새로운 사물들, 인공적인 사물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세계에 대한 지배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간다.

이처럼 사람은 능동적으로 세계의 사물현상들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고 새것을 만들어내감으로써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된다.

사람이 창조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쓸모있고 리로운것으로 개조변혁해나가는 창조적활동을 하게 된다.

창조적능력은 과학기술지식과 경험, 기능, 숙련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 그것을 개변하는 방식과 수법을 반영한 사회적의식이다. 사람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드는 창조적활동을 할수 있다. 물론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드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경험, 기능, 숙련과 무관계할수는 없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능, 숙련은 인간의 창조적활동에서 과학지식보다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은 과학기술지식이라고 하며 그것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으로 된다.

문 10 : 의식성이란 무엇인가

답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입니다.》

의식성은 자주성, 창조성과 함께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이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간다.

의식성은 무엇보다도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는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성질이다.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는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동물원이나 교예단에 가면 가지가지의 재간을 펼쳐놓는 성성이의 재미있는 행동을 볼수 있다. 성성이는 자기가 사는 《집》도 거두고 비자루로 마당도 쓸며 관리공이나 교예사가 신호를 주면 밥상과 그릇을 가져다 놓고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기도 한다. 또 더하기, 덜기와 같은 《셈세기》도 곧잘 한다. 성성이의 행동은 그야말로 사람의 행동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목적의식적인것이 아니다. 성성이가 제 아무리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훈련을 통하여 형성된 《제 2의 천성》인 습관, 조건반사에 따라 맹목적으로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만약 조건반사가 형성되지 못한 성성이를 가져다놓으면 옆에 밥그릇과 손가락이 있어도 리용하지 못하며 또 그 의미를 모르는 《셈

세기》도 못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밖의 그 어떤 생명체도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사람만이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인식활동을 할 수 있다.

의식성은 다음으로 세계를 개변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성질이다.

아무리 발달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활동은 본능에 의한 생물학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생물학적인 본능으로는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벌어나간다.

사람이 의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적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발전된 뇌수의 고급한 기능이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향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며 객관세계의 본질과 그 합법칙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의식은 크게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구분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며 지식은 객관적대상의 본질과 특성, 그것을 사람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방법을 담은 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지식의 형성방향을 규정하며 지식이 사람의 요구와 리해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조절한다. 사상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학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되며 그것을 사회와 집단, 인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리용하게 된다.

문 11 :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가

답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루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밀접히 연관되어있으며 사람의 활동에서 통일적으로 발현된다.

무엇보다도 자주성과 창조성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우선 자주성은 창조성을 발양시키는 요인이며 창조성은 자주성을 실현하는 담보이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데로부터 세계를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적활동을 벌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게 된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지향과 요구, 자각과 의지가 높을수록 창조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게 된다.

한편 창조성을 발양해야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사람은 창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창조적활동을 벌리며 자주성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간다. 창조성이 없이는 그 어떤 자주적요구도 실현할수 없다.

다음으로 의식성은 자주성과 창조성의 전제이며 담보이다.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조하는 활동을 규제하는 의식성이 없이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자주성도,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의 창조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주적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할수 있는것이다.

사람은 의식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계와 자기자신을 더 깊이 파악하게 되며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창조적활동을 더 높은

수준에서 별려나가게 된다. 사람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니고있는가 또 그것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의식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문 12 :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어떻게 형성발전되는가

답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속성입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람의 속성이라는것은 그러한 속성들이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물론 사람은 발전된 유기체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람의 발전된 육체적기관과 그 특수한 기능들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자연적 및 생물학적바탕으로는 되지만 그로부터 직접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나오는것은 아니다.

20 세기 60 년대에 인디아의 수림속에서 짐승의 무리와 같이 자라난 소년을 발견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소년은 말도 못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서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기어다니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육체는 사람의 육체였으나 행동은 짐승과 다름없었다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이 결코 자연이 주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의 본질적속성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력사적으로 발전해온것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우선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가지게 되는 속성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이 사회적관계를 맺고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과정에 형성된것이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며

활동함으로써 본능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이기를 그만두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과 같은 사회적속성을 지니고 자연과 사회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는 특출한 존재로 되었으며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됨으로써 자연계에서 벗어나와 사회적속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비로소 인간으로 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또한 사회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전되는 속성이다.

교육은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형성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공간이다. 사람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이룩한 선진사상과 과학기술지식을 체득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실천과정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체득하고 공고화해나가며 교육을 통하여 습취한 과학기술지식을 검증하고 그것을 풍부히 해나간다.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이처럼 사회적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과정에, 특히 사회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형성발전되는 사회적속성이다.

문 13 :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무엇인가

①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과 사회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세계로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연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사람의 생존과 발전에 큰 피해를 주던 자연의 사물현상들이 인간의 창조적인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복무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되고 또 사람에게 직접 복무하지 않던 자연의 사물현상들이 사람의 생산수단과 생활자료로 리용되는 사실들은 자연이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음으로 자연뿐 아니라 사회도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사회제도가 사람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 바뀌어왔다.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더욱더 목적의식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나가게 되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은 사람이 끝없이 넓은 세계를 현실적으로 다 지배하고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는 아직

사람들이 실지로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수많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람이 지배하는 세계의 영역은 끊임없이 넓어지게 된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서 개조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다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리 용함으로써만 자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를 개조해나갈수 있다.

결국 세계가 사람에 의해서 개조된다는것은 세계의 모든 운동변화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니라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사람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문 14 :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무엇인가

답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세계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하며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무엇보다도 세계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기본요인을 밝혀주는 합법칙성이다.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이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사람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활동과정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람은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해나간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연과 사회가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의 리익에 맞게 개변되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다음으로 세계가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은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기본방향을 밝혀주는 합법칙성이다.

세계가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세계가 사람의 자주성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변되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간활동의 근본목적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고 또 사람의 자주성을 위한 활동이 끊임없이 심화되어나가는한 세계는 필연적으로 더욱더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세계가 사람의 자주성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복무하는 자연과 사회의 영역과 대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심도가 깊어지는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다음으로 세계가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발전한다는것이다.

세계가 사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는것은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이 이루어져나가는 양상을 밝혀주는 합법칙성이다.

세계가 사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는것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따라 세계의 발전과정이 더욱 촉진되어나간다는것이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과정의 촉진정도는 사람의 발전정도,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장성강화되는데 따라 필연적으로 세계의 발전과정은 더욱 촉진되게 된다.

세계가 사람이 발전하는데 따라 발전한다는것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맞게 자연과 사회의 개조발전과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문 15 :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무엇인가

답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사람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보고 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자면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워야 하며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한다.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키자면 사람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식과 실천활동의 대상을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세계를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은 다음으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데서 사람의 주동적작용을 기본으로 보며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힘을 발동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피해를 가지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자고하니 자재와 자금, 로력 할것없이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믿으시고 인민의 힘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갈 열쇠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과 무릎을 나란히 마주하시고 나라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에 대하여 세세히 알려주시면서 1 만 t 의 강재를 더 생산할것을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접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났으며 6만 t 밖에 생산할수 없었던 분괴압연기를 가지고 2배나 되는 12만 t 의 강재를 생산하였다. 이 놀라운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져갔으며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눈부신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구현되어 이룩된 빛나는 성과인것이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자면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 공정으로 삼아야 하며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문 16 : 주체의 사회력사관이란 무엇인가

답 주체의 사회력사관이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밝힌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 관점과 입장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밝힌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밝힌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고 창조적운동이며 의식적운동이라는 원리들을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다음으로 력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고 창조적운동이며 의식적운동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키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밝혀준다.

사회력사관은 철학적세계관과 함께 오랜 력사를 거쳐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맑스주의이전시기까지 관념론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유물론이

나 변증법을 제창한 사람들도 모두 사회력사에 대해서는 관념론적립장에 서있었다.

지난 시기의 모든 사회력사관과는 달리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기초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과 사회력사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라는데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특징이 있다.

문 17 : 사회란 무엇인가

답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다.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라는데 사회의 본질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재부를 가지고 사회적관계로 결합되어 생활하는 집단이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는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람의 집단은 본능에 의하여 결합된 동물의 무리와는 달리 공동의 생활상 요구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루어진 목적의식적인 결합이다. 사람의 집단은 그 형태와 규모, 성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지만 어느것이나 다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원시인들의 씨족, 종족으로부터 오늘의 민족국가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집단들은 다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목적의식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데 사람의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동물의 무리와 구별되는 근본특징의 하나가 있다.

사회는 다음으로 조직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람의 집단은 동물의 무리와는 달리 개별적사람들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적결합체이다.

모든 집단안에는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계와 질서, 조직기구와 수단들이 있다. 사람의 집단인 사회는 발전하면 할수록 보다 유기적으로 조직된 집단으로 완성되어나간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살며 활

동하는 집단이라는데 사회의 본질이 있다.

사회에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외에도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가 있다.

사회적재부는 사람이 창조하여 리용하는 수단들의 총체로서 여기에는 물질적재부와 정신적재부가 속한다. 사람은 사회적재부를 가져야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며 사회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자신을 보다 힘 있는 존재로 키워나갈수 있다.

사회적관계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되어 사회를 이루게 하는 질서이다.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되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인것만큼 그들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사회적관계가 없이는 사회가 이루어질수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사회에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이외에도 자연에는 없는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가 있지만 사회의 본질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주인이기때문이다.

문 18 : 사회생활은 어떤 분야로 나누어지는가

답 사회생활은 여러 분야에 걸쳐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지만 그것을 크게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로 나누어 볼수 있다.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치생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는 정치생활입니다.》

정치생활은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사회생활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주인이 되어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활동이다.

정치생활은 국가정권의 주인이 되어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생활과 당을 비롯한 대중정치단체들에 망라되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어나가는 정치조직생활로 나누어진다. 참다운 정치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정치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회생활전반이 좌우되고 또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이기때문이다.

사회생활의 다른 한 분야는 경제생활이다.

경제생활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자료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교환하고 소비하는 사회생활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경제생활을 누리다가 못
누리다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관계, 경제제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주인이 되어 물질적부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
로 될수 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경제생활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 사회생활분야인것으로 하여 정치
생활과 사상문화생활을 물질적으로 안받침해준다.

사회생활의 또 다른 한 분야는 사상문화생활이다.

사람은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건전
한 사상과 정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생활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고상
하고 문명하게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사회생활분야가 바로 사상문화생활이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해나간다.

사상문화생활에는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발
양시키기 위한 사상생활과 함께 인류가 축적한 과학기술을 체득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과학과 교육활동, 사람들이 무병장수하게 육체를 키우고
단련하는 보건, 체육활동, 문학과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활동 등이
속하게 된다.

사람의 참다운 사상문화생활은 인민이 주인된 사회, 사회주의사회
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반
영한 건전한 사상과 문화, 생활양식이 지배하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참
다운 사상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
생활이나 경제생활은 다 사람들의 생활인것만큼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는

가에 따라 그 수준과 발전이 좌우된다.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다양한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되어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그것을 옳게 향유할수 있다.

문 19 : 사회의 성격은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답 사회의 성격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사회를 특징짓는 기본징표는 해당 사회에서 어떤 계급, 어떤 사회적집단이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계급, 집단이 사회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자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국가정권을 장악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것이다. 그것은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것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성격은 우선 국가정권이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있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국가정권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와는 달라서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나라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할한다. 그리고 국가정권은 군대, 경찰(보안), 감옥과 같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복종하도록 만든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정권을 쥔 계급, 사회적집단은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모든 사회성원들을 움직일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와 리익이 구현되는 사회제도를 세우고 유지할수 있다. 반면에 국가정권을 쥐지 못한 계급, 사회적집단은 사회적으로 예속되고 억압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집단이 국가정권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사회의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사회 성격은 또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생산수단은 사람이 생존하며 발전하는데 필요한 생활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리용되는 물질적수단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누가 어떤 형태로 소유하였는가에 의해서 경제생활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는 계급, 집단이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면 해당 사회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가령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형태가 지배하는 사회는 착취사회로 되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형태가 지배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사회로 된다.

이처럼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에는 국가정권을 어느 계급이 쥐고있는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계급이 국가정권을 쥐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문 20 :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무엇인가

답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징은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사회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다.

지난 시기 주체라는 말은 운동의 담당자일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여져왔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쓰는 주체라는 말은 사회적운동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자연에는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주체가 없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에는 운동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주체가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위세계를 지배하며 개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간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사회적운동 그 자체가 있을수 없다. 바로 여기에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주체의 운동으로서의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운동이라는것은 결코 사회적운동이 객관적성격을 띠지 않는다거나 또 사회적운동에는 자연발생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정한 사회경제적조건이 지어지면 사회적운동에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사회법칙이 작용하게 되며 그것은 자연법칙과 같이 객관적성격을 띤다. 그리고 사회적운동은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는 사회제도가 세워지지 못한 조건에서는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의 자연발생성의 작용의 범위를 줄이고 주체의 주동성과 목적의식성의 작용범위를 확대시키자면 주체인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고 그것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는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문 21 :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고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운동 그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력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어있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 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고 추동되기때문이다.

사회적운동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의하여 일어난다.

온갖 형태의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적운동을 일으킨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떠나서는 사회적운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추동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것이 창조되며 역사가 전진한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것은 결코 역사발전에서 개인이 노는 역할을 부인하는것이 아니다. 개인은 그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역사발전에 이러저러하게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 되고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할 때에만 역사발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소집단도 인민대중과 합류되어야만 역사의 주체의 당당한 성원으로 될수 있고 역사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다.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반동적착취계급은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보다도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특권적지위를 유지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들은 역사가 전진하여 새로운 제도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면서 어떻게 하나 역사의 전진을 멈춰세우려 하거나 되돌려세우려고 한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로 될수 없으며 사회발전과정에서 타도되어야 할 역사의 반동,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문 22 :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란 무엇인가

답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을 말한다.

인류사회의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 력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사회가 서로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열되고 착취사회가 생겨난 다음부터 인민대중은 가혹하게 착취받고 억압받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아직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라고 말할수 없다.

력사의 주체로부터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의 력사적전환은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출현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계급적조건이다.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사회가 생겨나면서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이끌어내게 됨으로써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할수 있는 사회계급적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출현만으로 력

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형성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을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는 결정적요인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된다.

문 23 :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고 하는가

답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어 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을 밝힌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주적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구속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인 요구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나가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크게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투쟁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투쟁은 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면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이로부터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민대중은 온갖 사회적예속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리게 된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연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자연의 객관적법칙에 얽매이게 되며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수요도 제대로 충족시킬수 없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간다.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람이 낡은 사상과 문화에 포로되어서는 자기의 처지와 힘도 옳바로 자각하지 못하게 되며 자기의 운명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을 벌려나간다.

결국 자연과 사회와 자기자신을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데 근본목적이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은 인류사회의 장구한 발전력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열된이래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 역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력사였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할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농민들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가 붕괴된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민대중을 얽매여놓은 노예의 철쇄를 봉건의 사슬로, 다시 자본의 멍에로 바꾸어 놓았을뿐 계급적지배와 압박자체는 없애지 못하였다. 인류사회력사에서 자본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이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들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인민대중은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수준도 매우 낮았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인류사회가 도달한 선진사상과 현대과학기술, 문학예술은 다 인민대중이 벌려온 역사적인 투쟁의 결실이다.

문 24 :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 어떻게 발전되어나가는가

답 사회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의 과업이 선차적으로 제기되고 실현되며 그 다음에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실현되어나가는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나 가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의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실현되어나 가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이 온갖 사회적예속과 불평등,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 하지 못하고 극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조건에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되어도 착취계급의 리익에 맞게 진행 될뿐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진행될수 없었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의 사회정치

적자주성이 실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다음으로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이 전면에 제기되고 실현되어나가게 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회정치적 예속에서 해방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만드는것과 함께 자연과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물론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연개조사업과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되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의 력사적과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온갖 창발성과 높은 의식성을 가지고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에 주인답게 떨쳐나서게 되며 모든 수단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효과적으로 동원한다. 그리하여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전 사회적범위에서 순조롭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관계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게 된다.

결국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과업이 실현되어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심화발전되며 그에 따라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되어나가게 된다.

문 25 :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고 하는가

답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가 개조변혁되고 역사가 발전되어나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을 밝힌것이다.

인민대중은 창조성을 본성으로 하는 창조적존재이다.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예측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아나가자면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낡은것을 없애버리고 새것을 창조해야 한다. 만약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만들어내려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요구가 없었더라면 헤아릴수 없이 많은 창조물들이 생겨나지 못했을것이고 도대체 사람자체가 생존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인민대중은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할뿐아니라 이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또 자기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단결된 힘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게 된다.

결국 인민대중이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창조적능력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해나가는것으로 하여 사회

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의 창조적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끊임없이 창조되고 낡은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개조발전되여 온 인류력사의 전과정이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을 체득하게 되고 육체를 단련하게 됨으로써 창조적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워나간다.

이처럼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투쟁으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변혁하여온 과정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온 과정인것으로 하여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된다.

문 26 : 사회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어떻게 발전되어나가는가

답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 장성강화 되는데 맞게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적재부가 늘어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어나가는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해나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발전은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과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회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사람과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가 발전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은 사회적재부나 사회적관계의 발전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며 그것을 리용하고 개조해나가는 사회의 주인이기때문이다. 사회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것은 사회적재부나 사회적관계인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인것만큼 사회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사회의 발전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여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재부가 증대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사회적재부가 증대되어나간다. 사회적재부가 늘어난다는것은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생활수단들이 풍부해지며 창조적활동에 리용할수 있는 수단들이 더욱 다양하고 위력해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의 발전정도에 맞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창조적활동을 벌려나간다. 그 과정에 인민대중의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발전된 사회적재부가 창조되게 된다.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관계도 개선되어나간다.

사회관계가 개선된다는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보다 원만히 실현될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나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결속되면 될수록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사회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 낡은 사회관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회관계가 세워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나가게 된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여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회적재부가 증대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어나가는 합법칙적과정을 통하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게 된다.

문 27 : 사회력사적운동을 왜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고 하는가

답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추동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입니다.》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의식적운동이라는 원리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을 밝힌것이다.

인민대중은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운동을 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도 의식적으로 제기하며 그 실현을 위한 인식활동, 실천활동도 의식적으로 벌려나간다.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 전개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우선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다.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상의식은 사람의 활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또한 과학기술지식에 의해서도 추동된다.

사람의 활동을 추동하는 의식의 규제작용은 사상의식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지식은 사상의식과 달리 사물현상들의 운동법칙을 정확히 반영한 의식형태이다. 사물현상들의 특성과 운동법칙, 그것을 개조하고 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과학기술지식은 사람

들이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추동한다.

사람들의 활동을 추동하는데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은 사상의식의 규제밑에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사람의 모든 사고와 활동의 기초에는 사상의식이 놓여있다.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 지혜와 재능의 형성과 그 리용 방향, 발휘정도를 규제하는것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기본추동력으로 된다.

결국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일어나고 전진하는 의식적인 운동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사회력사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본질적의미가 있다.

문 28 :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답 혁명운동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과 그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적극 추동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 혁명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혁명투쟁을 추동하며 반동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고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반동적인 작용을 합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무엇보다도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을 규제함으로써 혁명운동을 적극 추동한다.

계급사회에서 초계급적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다.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은 계급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물론 사람들의 활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하여 제약된다. 그러나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느 계급의 사상을 가졌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선진계급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계급적립장을 가지고 혁명운동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게 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다음으로 혁명운동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것을 통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추동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사상문제이다. 대중의 혁명적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고 혁명투쟁의 앞길을 가로 막는 자그마한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앉게 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을뿐아니라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이처럼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의하여 일어나고 적극 추동되어나가게 된다.

문 29 :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란 무엇인가

답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이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원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원칙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한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한 원칙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원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거하며 그것을 적극 발동하여 사회력사발전과정을 다그쳐나가게 한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원칙은 사상개조를 앞세우고 정치사업을 선행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원칙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한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그 어떤 우여곡절과 편향도 없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문 30 : 자주적립장이란 무엇인가

답 자주적립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근본립장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킨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자신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자주적립장은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것을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며 주견이 없이 남을 쳐다보거나 대세에 따라 움직이는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립장이다. 독자성이 없이 남에게 얽매여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남의 의사를 따르면서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지 못하는것은 자주적립장과 배치된다.

자주적립장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

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주인된 입장을 저버리는 것이다.

1936년에 에스빠냐에서 인민전선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결탁되어있는 프랑꼬반혁명세력과의 혁명전쟁을 하였다. 당시 이전 소련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은 싸우는 에스빠냐인민들을 위하여 수많은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그러나 에스빠냐인민전선은 프랑꼬파쇼도당의 반혁명적진출을 막아내지 못하고 끝끝내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된데는 물론 제국주의렬강들의 배신적인 음모책동과 특히 파쇼도이칠란드와 이탈리아의 로골적인 무장간섭이 중요한 원인으로 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에스빠냐혁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컸던 조건에서도 에스빠냐인민전선이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한 기본요인은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지 못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은 혁명과 건설이란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하며 그래야 혁명과 건설을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잘할수 있고 또 그 성과도 참으로 공고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립장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으로 된다.

문 31 :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인것만큼 남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면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해나갈수 없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에서 당사상사업분야에 기여든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우리의것은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고 남의것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빠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44(1955)년 12월에 고전적으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당시 당사상사업부문에 기여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감행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적책동의 본질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날날이 폭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조선혁명은 곧 우리 당사상사업의 주체이며 따라서 우리 당사상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옳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리하여 남이 하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데 버릇되고 우리 당이 새롭고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을 때마다 그것이 맑스-레닌주의고 전이나 큰 나라의 경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부터 따져보던 교조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이 가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며 자기것에 정통해야 한다. 또한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문 32 :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 국가활동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적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당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 당들은 혁명을 먼저 한 큰 나라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을 혁명의 원칙을 지키는 하나의 기준인것처럼 여기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당도 국가도 큰 나라를 본따서 건설했는가 하면 큰 나라에서 당대회를 하면 앞을 다투어 자기 나라에서도 당대회를 했고 큰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건 맞지 않건간에 그대로 따랐다. 이런 비극적인 모방의 바람을 타고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서면 베를린이나 부다페슈뜨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들고 다녔다는 풍문도 생겨나게 되었던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건당, 건국, 건군로선도,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

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도 우리 인민의 의사에 맞게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해나갔다.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비롯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도 다 우리 식으로 세우고 관철하였다.

이렇게 하였기에 남의 《지휘봉》에 따라 맹종맹동하던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큰 나라의 붕괴와 함께 존재를 끝마쳤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오늘과 같이 복잡한 정세와 지구의 동서를 휩쓴 대정치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할수 있게 되었다.

력사적경험은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해야만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고 주체적인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지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관철하는것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실현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선군정치를 실현하는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횡포해지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나라가 먹히워도 그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는 오늘의 조건에서 선군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다. 그러므로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선군정치의 본질이 있으며 정치적자주성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문 33 : 경제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경제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곧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힘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남에게 빚을 지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것처럼 나라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매이게 되면 자주권을 행사할수 없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약탈로 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던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면 경제적자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한때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썩브》에 끌어들이려고 책동한 적이 있었다.

《썩브》로 말하면 그것은 일부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제 2 차 세계 대전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며 미제의 경제봉쇄정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내온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협조기구였다.

그러나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썩브》를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국제분업》을 제창하면서 나라별로 생산을 전문화할것을 요구하였다. 가령 남새농사가 잘되는 나라는 남새를 전문화하여 남새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고 그 대신 필요한 기계들을 사다 쓴다는것이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

라의 무진장한 철광석이 탐나서 우리를 《썬브》에 끌어들이는 다음 혈값으로 철광석을 가져가고 기계제품같은것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으려고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기계공업이 없는 조건에서 국제분업에 참가한다면 《썬브》성원국들에게 원료나 대주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빈 굴만 남게 되고 밤낮 다른 나라에 빌려다닐수밖에 없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국주의자들이 《썬브》에 들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끝내 들지 않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관철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움직이고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력사적경험은 경제에서 자립해야 자주권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자립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자기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인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며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고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며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문 34 :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게 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며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한다는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수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질 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인민, 자기의 령토를 지킬수 있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경제적자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그 평화적담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화는 결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킬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힘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적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의 아들딸로 자체의 강력한 혁명군대를 조직하고 그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

는것이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혁명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무비의 희생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동지애와 인민들과의 혈연적연계, 자각적군사규률 등은 혁명군대의 고유한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우며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후방을 강화하는것이다.

문 35 : 창조적립장이란 무엇인가

답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적립장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하는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한다는것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킨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될 때 혁명과 건설은 성과적으로 수행된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보지 않고 물질기술적수단만을 절대시하는 기술만능주의, 혁신과 전진을 두려워하는 보수주의, 소극성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 립장이다.

창조적립장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모든 문제를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은 나라의 구체적인 조건과 끊임없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모든 문제를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혁명과 건설의 과학적방도를 옳게 찾아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창조적립장은 기성리론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언제나 비판적으로

대하고 거기에서 가치있고 유익한것만을 받아들이며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립장이며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 기성 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통채로 삼키는 교조주의와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립장이다.

문 36 : 인민대중에게 의거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인민대중에게 의거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력량인것만큼 인민대중에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습니다.》

속담에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제갈량은 중국 삼국시대의 명장이다. 그는 지혜있는 사람으로서 비상한 재능을 발휘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군사를 통솔하는데서 중국력사상 손꼽히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있는 사람을 제갈량에 비겨왔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것은 개인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세고 총명해도 대중의 힘과 지혜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다. 바꾸어말하면 한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더 힘있고 지혜롭다는 뜻이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인것만큼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떨쳐나서기만 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들며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군중적인

동을 널리 벌리는것이다.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 데서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문 37 :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실정에 맞게 한다는것은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그리고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운동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조건을 타산하고 거기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전후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공업화를 하지 못한 조건에서 농촌경리를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겠는가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해나섰다. 그것은 당시까지만 하여도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는 공업화를 한 기초우에서만 할수 있다는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년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농촌경리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심히 령락된 조건과 협동화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여 수행할만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어있는 현실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농업협동화의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농업협동화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것처럼 어렵고 거창한 사회적변혁이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될수 있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최대

한으로 다그치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을 실정에 맞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는것이다.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타산하는데서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어떻게 준비되어있는가 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혁명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체적요인, 주체적혁명력량이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을 실정에 맞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고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새로운 원리와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것이다.

문 38 :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혁명운동에 작용하는 두요인 즉 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 가운데서 사상적요인을 보다 중시한다는것이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은 기술실무적방법이나 행정적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것이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인이기때문이다.

혁명운동에는 사상적요인과 물질적요인이 작용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물질적조건이 아무리 충분히 마련되여도 사람이 사상적으로 발동되지 않으면 혁명과 건설이 추진될수 없다. 그리고 물질적조건도 사람이 마련하고 리용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반드시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는것은 다음으

로 사상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의 본성적방법이라는데 있다.

반동적인 착취계급, 지배계급은 근로대중을 동원하는데서 강제와 탄압에 의거하지만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들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자각적으로 떨어나서게 하는 방법으로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한다.

혁명가들은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강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고있다.

반동적착취계급, 지배계급도 저들의 사상을 퍼뜨리려고 책동하고있지만 그들의 사상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반인민적인것이기때문에 대중의 사상으로, 사회의 유일한 사상으로 되지 못한다.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만이 전체 인민에게 접수될수 있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있고 또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기때문에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것을 통하여 그들을 발동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게 된다.

문 39 :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혁명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데서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개조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업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며 장기성을 띠게 된다. 더우기 사상개조사업이 사상분야에서 벌어지는 낡은것과 새것과의 투쟁인것으로 하여 하나의 심각한 혁명으로 되게 된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정력적으로, 인내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개조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서 기본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것이다.

사람은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이 바로 서야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입장에서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해서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또 혁명관이 바로 선 사람이라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완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야 한다.

혁명관을 바로 세우자면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끝없는 헌신성,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우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의 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혁명관이 바로 선 투철한 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학습을 강화하고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하며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한다.

문 40 :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그들이 높은 열성과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사람이며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사람이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였다.

주체 67(1978)년 뜻깊은 공화국창건 30돐을 앞둔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9월의 경축행사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평양시민들의 100 만명 군중시위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처럼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어보지 못한데다가 공화국창건 30돐을 앞두고 거의 모든 평양시민들이 공장, 기업소와 건설장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처럼 많은 군중을 동원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나니 행사조직을 맡은 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고 행사준비사업은 전진이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다.

어느날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여 것처럼 방대한 규모의 행사를 행정실무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되며 당조직을 움직여 정치사업을 들이대야 한다고 간곡히 타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당조직들이 정치사업을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만 불리일으킨다면 한사람이 두몫, 세몫을 해제끼면서 얼마든지 많은 군중이 동원될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시위분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시 당조직들에서는 시민들속에서 9.9 절경축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에 시민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면서도 행사준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창건 30돛경축 평양시민들의 100 만명 군중시위는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진행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행사준비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운 결과였다.

정치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 기술경제사업을 이에 옹계 결합하며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옹계 배합해나가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잘해나가는데서 옳바른 방법에 의거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문 41: 주체의 혁명관이란 무엇인가

답 주체의 혁명관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건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의 본질과 근본목적, 그 실현방도를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대상에 대하여 잘 아는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떠난 혁명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또 그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그런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데서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부터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실무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인것만큼 주체의 혁명관은 도덕관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주체의 혁명관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어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것으로 하여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의 전일적인 체계로 된다.

문 42 : 혁명의 근본원리는 무엇인가

① 혁명의 근본원리는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리론들을 새롭게 밝힐수 있게 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구현한 원리이며 그것은 주체사상의 본질을 표현하고있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밝힌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근본목적은 인민대중이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해방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 주인으로 된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된다.

인민대중은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

중에게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밝힌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뿐아니라 그것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적능력,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세상에는 인민대중의 혁명적능력, 창조적능력보다 더 위력한 힘은 없다. 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다름아닌 혁명의 근본원리이며 주체의 혁명리론은 그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어있다.

문 43 : 혁명이란 무엇인가

답 혁명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은 우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갖 형태의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하여 혁명투쟁을 벌린다. 모든 혁명운동은 다 민족적인 또는 계급적인 예속,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그 근본목적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혁명은 또한 인민대중의 조직적인 투쟁이다.

혁명이 그 근본목적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여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모든 투쟁이 다 혁명인것은 아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산만하게 비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혁명으로 되지 못한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조직적인 투쟁으로 될 때 비로소 혁명으로 되게 된다.

혁명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과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사회제도로 바꾸는것이다.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사회적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낡은 착취사회제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극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게 특권적지위를 보장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워야만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바꾸는데서 기본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변혁하는것이다.

혁명의 기본내용의 다른 하나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가로막는것은 낡은 사회제도만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이 실현된 사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새로운 사회제도가 인민대중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적락후성이 남아있으면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을 극복하여야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할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에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이 혁명으로 되는 중요한 리유가 있다.

문 44 : 혁명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답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구속이 있을 때 그리고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일어난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에 대한 구속과 유린이 있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혁명이 일어나는 객관적요인이다.

그 어떤 구속과 예측도 반대하고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그런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유린되고 구속당하게 된다. 특히 낡고 반동적인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어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다. 그리고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새 제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되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구속하게 된다.

혁명은 바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유린되고 구속당하므로 일어나는것이다.

혁명은 직접적으로는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준비에 의하여 일어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민대중의 높은 자주의식과 정치적준비에 있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유린되고 구속당한다고 하여 아무때나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주성에 대한 구속과 유린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는 되지만 그 직접적원인으로는 되지 않는다.

혁명이 일어나자면 우선 인민대중이 높은 자주의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그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면서 혁명할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자각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

혁명이 일어나자면 또한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준비된다는것은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된다는것이다. 혁명은 결코 개별적 몇몇 사람들의 산발적투쟁이 아니라 대중의 조직적투쟁이다. 반혁명세력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혁명이 일어나자면 인민대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결속되어 혁명의 주체를 이룬 인민대중만이 혁명을 일으키는 위력한 력량으로 될수 있다.

문 45 : 혁명적수령관이란 무엇인가

답 혁명적수령관이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혁명적수령관은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룬다.

혁명적수령관은 무엇보다도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다.

수령은 우선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지위는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라는것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결속시키는 중심으로 된다.

수령은 또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풍부화시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마련한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령도로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수령을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개인은 아무리 뛰여났어도 인민대중의 한 성원으로서 제한된 지위를 차지하고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한몸에 체현하고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서 사회적집단

전체를 대표하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적수령관은 다음으로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으로부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가 흘러나온다. 수령을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조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응당한 립장이며 자세이다.

수령을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조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의 본질적내용이다.

수령을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든다는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의 령도를 받는 한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간다는 것이다.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한다는것은 수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수령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신조화한다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업과 생활에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며 수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 조건타발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을 발휘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을 충정으로 높이 받드는 립장과 자세의 기본요구, 기본척도이다.

문 46 : 혁명적조직관이란 무엇인가

답 혁명적조직관은 수령이 창건하고 령도하는 혁명적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관은 당조직뿐아니라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합니다.》

혁명적조직관은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의 령도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한다.

혁명적조직관은 무엇보다도 혁명조직을 자기의 정치적생명의 모체로 보는 관점이다.

혁명을 하자면 단결하여야 하고 단결하자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의 귀중성은 단결의 필요성과만 관련되지 않는다. 혁명조직들은 인민대중을 이루는 모든 성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 만들며 수령과의 혈연적련계를 지어준다. 조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될수 없으며 수령이 안겨주는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없다.

혁명조직을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바로 여기에 혁명적조직관의 진수가 있다.

혁명적조직관은 다음으로 혁명조직을 존엄있게 대하며 혁명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립장이다.

혁명조직이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인것만큼 혁명가들은 혁명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자식들이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처럼 혁명가들이 자기의 정치조직을 사랑하고 존엄있게 대하는것은 응당한것

이다.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각적인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혁명적조직관은 결국 혁명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과 립장으로서 혁명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혁명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문 47 : 혁명적군중관이란 무엇인가

답 혁명적군중관이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군중관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입니다.》

혁명적군중관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본다는것은 혁명을 요구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직접 담당수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라는 관점을 가진다는것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다는것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는것이다.

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며 혁명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벌리는 투쟁이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에 의해서만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의 주인, 혁명의 직접적담당자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립장이 나온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인것만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혁명가의 마땅한 자세로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관점과 립장은 군중을 깔보고 군중에게 호령하며 자기를 군중 위에 선 특수한 존재와 같이 생각하면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혁명적군중관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는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위력한 존재로 본다는것이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간다는것은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개인은 아무리 총명하고 유능하다고 하여도 인류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축적해놓은 지혜와 힘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하고있을뿐이다. 오직 인민대중만이 인류가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개조하여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을 하자면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며 그러자면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 관점과 립장은 대중의 힘을 믿지 못하는데로부터 나오는 사대주의와 비관주의, 패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문 48 : 혁명적도덕관이란 무엇인가

답 혁명적도덕관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도덕관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입니다.》

참다운 사회적인간은 혁명적량심의 소유자이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충실히 지키려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높은 책임감이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회적행동규범, 혁명적도덕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혁명적도덕관이다.

혁명적도덕관은 무엇보다도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 관점과 립장이다.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 살수 없으며 따라서 집단의 리익은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집단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으로 된다.

집단과 개인의 도덕관계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기본은 수령, 당, 대중과 개인의 관계이다.

인민대중이 집단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심인 수령과 그 생명활동에서 중추적기능을 수행하는 당도 집단을 대표

한다. 그러므로 혁명적도덕은 무엇보다도 수평,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집단과 개인의 도덕관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적재부와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도덕적의무로 삼고 지켜나가는것이다.

혁명적도덕관은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단안에서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을 도덕적의무로 여기는 관점과 립장이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개인의 리익이 다른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 문제가 서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사이의 관계는 집단안에서 평등한 자주적관계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 혁명가들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주적관계인 동시에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지적사랑의 관계이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것은 동지들 호상간에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것이다.

혁명동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도 충실할수 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일상 생활에서 동지들사이에 혁명적의리를 지킬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것을 파악하는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옳게 보고 평가하는데서 첫 공정으로 된다.

개인과 개인의 도덕관계에서 가족성원들사이의 육친적사랑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사랑으로 되게 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가족관계는 혈연적관계에 기초하고있다는데서 다른 사회적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도 사회적관계인것만큼 가족성원들사이에도 사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도덕적의리가 작용하게 된다. 가정생활에서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들사이, 형제자매들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사랑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개인과 개인의 도덕관계에서 사회공동생활에서 레절을 잘 지키며 사람들사이에 서로 돌보아주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사람들이 레절을 잘 지키며 늙은이와 어린이, 애기어머니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따듯이 돌보는것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도덕품성이다.

문 49 : 주체의 인생관이란 무엇인가

답 주체의 인생관이란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보람있게 살아야지 제 한몸이나 돌보면서 한생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인생관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견해, 관점과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어떤 삶이 값있고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며 그러한 삶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 립장이다.

사람의 인생행로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옳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한생을 후회없이 값있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답게 살수 없다.

사람이 한생을 값있게 살자면 주체의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주체의 인생관이란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한생을 값있게 살수 있게 하는 집단주의적인생관이며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우선 집단주의적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사회적집단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 삶을 가장 참다운 삶으로 보고 대하는 집단주의적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개인주의적인생관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인생관은 크게 개인주의적인생관과 집단주의적인생관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개인주의적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며 집단주의적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

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다.

사람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가는것만큼 생활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되게 된다. 만일 사회와 집단과 떨어져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그의 한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한것으로 되게 된다.

주체의 인생관은 자기 개인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남는것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참다운 삶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본다.

주체의 인생관은 또한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인생관이다.

주체의 인생관이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인생관이라는것은 그것이 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된 인생관이라는것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거기에서 값높고 보람찬 삶을 찾을수 있게 하여준다.

문 50 : 사람의 가장 귀중한 생명은 무엇인가

답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혁명가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육체적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바로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존엄있게 살수 있게 하는 가장 귀중한 생명이기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정치적생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하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 때에만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사회도 정치도 모르고 무위도식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수 없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도 귀중하다. 그러나 육체적생명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사람은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정치적으로는 죽은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정치적생명이 사회적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이기때문이다.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이 부여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투쟁속에서 빛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그가 속한 사회정치적집단과 함께 영생한다. 사회정치적생명이 영생한다는것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과 녀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고 대를 이어 가면서 빛나는데서 표현된다.

영생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요구는 사람이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임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